

**Name: David Lee**

**Year Level : 11**

**Nationality: Korean**



Sunnybank State High School에서 유학생생활한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다른 교육시스템에 처음엔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도 생기고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강압적이지 않고 차근차근 편안하고 다양하게 공부 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한국식 교육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감하듯이 많이 강압적입니다. 호주에서는 영어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타입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지만, 적어도 주입식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어 정신적으로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흔히 체험/공부 할 수 없었던 건축분야도 공부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제 꿈이 건축분야라 실기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기초적인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굳이 비용을 더 들지 않더라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든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호주에서의 유학생생활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 중 하나로 손꼽힐 것 입니다.

It has already been 2 years to studying in Sunnybank State high School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had a lot of difficulties by the difference of culture and education system, but as time goes it got better and I started to see advantages of studying in other country. The best thing was the education of Australia wasn't forcing students to study hard and the students can study calmly, variously and in comfortable circumstance. The way of Korean's education is very coercive as most of Korean students agree. I had to overcome different type of problem in Australia because of English but, at least, Mentally, I became a lot more comfortable because I didn't have to take cramming education. Also, I was very happy about I could even study/experience few parts I couldn't study in Korea such as Construction. It was more than great because I can experience it without paying extra payment. At the first time, it was sequence of hardship, but studying in Australian as an international student will be one of my best experience of my life.